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8호 소개

2013년 6월에 창간하여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이번 달로 제28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헌법판례동향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로 소개된 '총리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탄핵의 정당성' 사건은 총리가 헌법상 의무에 대한 불성실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탄핵된 경우, 이것이 유럽인권협약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아이슬란드 탄핵재판소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 아이슬란드 은행과 국가 재산이 위험에 빠져 총리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헌법 제17조에 따라 중요한 정부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각료회의를 열어야 하는 의무를 태만한 것(그 시기 개최된 52번의 각료회의에서 경제위기에 대해 논의된 것은 4번에 불과하였던 것)이 총리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들(2004헌나1, 2016헌나1)과 비교하여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신분관계법상 남녀 이외에 제3의 성(性) 등록거부의 위헌성' 사건은 신분관계법상 남성, 여성이외에 제3의 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인격권은 성적 정체성을 보호하며, 지속적으로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사람의 성적 정체성 역시 보호한다고 하면서, 신분관계법이 성의 등록을 강제하면서도 "여" 또는 "남" 외에 제3의 성의 적극적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판례로 소개된 '혼인과 등록된 동반자관계의 구분으로 인한 차별금지 위반' 사건은 혼인은 이성의 두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동성 커플에게는 동반자관계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도적 구별이 필연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효과를 발생시켜 위헌이라고 하면서, 동성 커플도 혼인을 할 수 있고 이성 커플도 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에 소개되었던 콜롬비아('동성혼 합헌 결정' 사건 - 뉴스레터 제22호), 미국('동성결혼 합헌 결정' 사건 - 뉴스레터 제14호, '동성혼 불인정 연방법의 위헌성' 사건 - 뉴스레터 제5호), 오스트리아('동성커플이 인공수정을 통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사건 - 뉴스레터 제8호, '부부에게만 공동입양을 허용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 사건 - 뉴스레터 제12호), 스페인('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개정 민법의 위헌성' 사건 - 뉴스레터 제4호, '동성커플에게 거부된 배우자 연금의 위헌성' 사건 - 뉴스레터 제11호), 프랑스('호적부관리책임자의 동성결혼 주재 거부에 대한 결정' - 뉴스레터 제7호), 이탈리아('성전환 이후 혼인 관계에 대한 결정' - 뉴스레터 제14호) 등과 함께 보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뉴스레터 지난호는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http://ri.ccourt.go.kr/cckri/cri/main.do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수신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발신자가 가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와 증거능력' 사건은 휴대폰을 통해 문자를 발송한 발신인이 수신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자신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자메시지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의 합리적인 기대를 인정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통제력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프라이버시 법리를 뛰어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범죄전력처리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가능성과 사생활 존중권' 사건은 무죄, 혐의 없음, 혹은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범죄전력처리파일에서 개인정보 삭제가 가능하나, 그 외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문제된 사건이며, 벨기에 헌법재판소의 '재범자의 가석방 조건의 차별성' 사건은 피고인이 재판받는 법원이 어딘지에 따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스위스의 '불법구금이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 여부' 사건은 불법적인 구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느 정도의 형의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불법구금 3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일의 감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NHK 공영방송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규정한 방송법의 합헌성' 사건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문제된 사건으로,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98헌바70, 2006헌바70)과 비교하여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유럽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포르투갈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랜 헌법재판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동향을 모아 놓았습니다. 링크를 연결하시면 해당 기사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중국통신원 소식으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 기본법에 대한 해석 권한'과 아프리카통신원 소식으로 '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의 사임'을 실었습니다.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새해에 더욱 풍부하고 신속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를 발행하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김성진